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외국에 비해 훨씬 값싼 기름을 쓰고 있습니다.”



黃鎬升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이 기사는 최근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誌(3.20字)에 게재된 黃鎬升 석유협회부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인터뷰어의 양해를 얻어 전재한 것이다.(편집자 註).

— 제 6공화국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많습디다만, 그중에서도 물가안정이 시급하고, 또 물가를 잡으려면 통화환수 못지않게 油價인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부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5공화국의 최대업적 가운데 하나가 물가안정인 것은 누구나 부인 못하듯이, 이번에 새로 출범한 6공화국에서도 물가안정에 상당히 신경을 쓸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봉급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오른 만큼 평가절하되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지금 당장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간 국제원유가격의 하향적인 안정세 지속과 달러貨가치의 하락등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한 만큼 조만간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하폭은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일부 소비자들은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외국에 비해서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반대예요. 저 역시 石油協會에 오

韓國·日本·台灣의 소비자가격 구조

(단위: \$ / B)

	韓 國	日 本	台 灣
세전공장도	26.96	35.65	39.43
諸 稅	6.64	15.85	5.51
- 특소세	3.59	15.85	3.40
- 부가세	3.05	-	2.11
유통수수료	5.46	45.54	-
計 (소비자가격)	39.06	81.19	44.94
휘 발 유	103.0 (100)	144.4 (140)	89.1 (87)
등 유	43.0 (100)	58.8 (137)	61.3 (143)
경 유	42.0 (100)	92.8 (221)	58.5 (139)
B-C 油	26.4 (100)	32.5 (123)	25.3 (96)

註: ()는 우리나라가격을 100으로 한 가격지수임.

주요국의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비교

(단위: \$ / B)

	韓 國	日 本	台 灣	프랑스	西 獨	美 國
휘 발 유 (보 통)	103.0 (100)	144.4 (140)	89.1 (87)	139.6 (136)	97.2 (94)	40.7 (40)
등 유	43.0 (100)	58.8 (137)	61.3 (143)	-	-	-
경 유 (저유황)	42.0 (100)	92.8 (221)	58.5 (139)	98.5 (235)	95.2 (227)	46.6 (111)
B-C 油 (저유황)	26.4 (100)	32.5 (123)	25.3 (96)	23.6 (89)	21.8 (83)	15.7 (59)

註: ()는 한국을 100으로 한 지수임.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諸稅

	韓 國	日 本	台 灣
○ 특별소비세	3.59 \$/B	15.85 \$/B	3.48 \$/B
휘발유	100%	87-110%	12%
경 유	9%	94%	10%
L P G	8%	55%	7.5%
B-C 油	-	-	3%
○ 부가가치세	3.05 (전유종 10% 균일)	-	2.11 \$/B (전유종 5% 균일)
計 (부과율%)	6.64 \$/B (24.6%)	15.85 \$/B (44.5%)	5.51 \$/B (14.0%)

註: 日本은 종량세를 증가세(%)로 환산하였으며, LPG는 차량용에만 부과됨.

기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싼 석유를 쓰고 있겠거니 막연히 생각해 왔는데, 막상 여기 와서 실상을 알아

보고 놀랐습니다. 휘발유는 외국에 비해 특소세 때문에 다소 비싸지만, 서민층과 산업체에서 많이 쓰는 燈油나 B-C 油와 같은 유종은 세계적으로 가장 싸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름 값이 제일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韓國의 현행 보통휘발유가격을 100으로 칠때, 臺灣은 87, 西獨은 94로 우리 보다 싸지만, 프랑스는 136, 日本은 140으로 우리보다 훨씬 비싸고, 燈油의 경우는 韓國이 100일때 臺灣이 139, 日本이 221, 西獨이 227, 프랑스는 235나 되는등 우리 것이 엄청나게 싸니다.』

— 油價의 가격구조는 나라마다 다를데지만, 대충 우리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나라 油價는 국내 精油5社의 원유도입 및 정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예컨대 원유대, 운임, 보험료, 석유사업기금, 관세 및 기타부대비용, 금융비등과 제품을 판매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精油社의 이윤은 비용의 정제비에 포함되고 이익수준은 세후로 자기자본의 1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하회하는 실정입니다. 유종별 가격은 각유종의 소비특성과 산업의 국제경쟁력등을 감안해서 어떤 유종은 高價로, 또 어떤 유종은 低價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 油價인하는 소비자부담을 줄이고, 물가인상요인을 흡수하는데다가 기업의 코스트를 낮춰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여차피 내릴 바엔 더 많이 내리는게 좋을텐데요.

『그렇지요, 油價의 인하폭과 시기는 정부가 결정할테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油價를 5%, 10% 내려서 기업의 코스트 다운을 시키고 동시에 물가인상요인을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 또 10%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곤란할 것 같아요. 일반소비자는 물론 기업들도 우리는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비록 기름값이 싸지더라도 언젠가 다시 국제환경이 나빠지면 油價는 또 오를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서 절약에 힘써야 합니다. 국제油價가 크게 내리지 않는 데도 우리가 기름값을 내릴 수 있는 건 석유사업기금을 많이 비축해 둔 덕분입니다. 이에 대해선 日本人들이 우

리를 무척 부러워하더군요.

— 일부 산업계에서는 현행 油價체계를 개선해서 최소한 휘발유, 輕油, B-C油 등 시장경쟁도가 높은 유종부터 규제를 풀어 자율화해야 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의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루 55만배럴, 1년으로 치면 2억배럴이라는 엄청난 기름을 사다 쓰는 우리네 형편으로서 당장 자율화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율화했고, 우리도 중진국졸업을 앞두고 선진국의 문턱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자율화해야 돼요.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외국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석유 제품에 대해 내는 세금이 비싸지는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모르긴 해도 우리가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뇌리속에 석유는 비싸다는 인식이 심어진데다가 더구나 정부가 석유사업기금을 떼고 동시에 稅收을 늘리려고 해서 더 비싼게 아닌 가 하는 고정관념에 젖어 있어 그런 말이 나오는 듯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휘발유엔 특소세가 100% 붙고, 輕油나 LPG엔 9%가 부과되는 데다가 유통단계에서 다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 등 석유제품에 관한 諸稅비중이 우리는 24.6%로 臺灣의 14%보다는 높지만, 日本의 44.5%에 비하면 아주 낮은 편입니다.』

□ 공산권 석유 산업 동향 □

中共의 石油 정제 전략

다음은 美國 동서센타가 中共의 石油 정제 전략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中共의 석유 정책은 原油와 석유제품 수출 극대화, 정유공장 처리량 제한, 정제 原油는 주로 중질·저유황 국산 원유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하에 中共의 정제업은 석유제품 수요의 輕質化, 옥탄價 향상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되고 장기적으로 탄력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

• 中共의 제7차5개년 계획(1986-90)에서는 상압증류장치를 50만B/D, 2차 장치를 45만B/D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까지 휘발유, 경유, 석유화학용 원료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용 원료에 있어 현재 300만/년 미만에서 1990년까지는 1,000만/년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輕油에서 1986년의 부족사태가 1990년에는 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에 대해서도 수입없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 2차 장치 건설계획에는 수소화분해장치는 1기밖에 없다. 그 이유로는 이 장치의 수입코스트가 높아 자국의 신기술개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Coker도 Delayed coker(40만t/년)1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中共에서는 휘발유 옥탄價를 70에서 90으로(Research 법 기준)높이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스 이용을 증가하도록 고려된 27기 장치 가운데 24기가 관련되게 된다. 합계능력은 106만t/년이다.

中共은 1990년까지 경유/휘발유 비율을 1.8:1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달성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中共은 휘발유·석유화학용 원료에 비중을 둔 투자패턴이기 때문에 1990년대의 증간유분의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中共은 주요 輕油 수출국은 되지 못하고 기껏해야 저품질 輕油를 수출하는데 그칠 것이다.(JETI)